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Kuehne + Nagel, 2017년 포워더 컨테이너 처리실적 1위



물류정책·산업동향

1. DHL, 금년도 10대 공급망 위험요소 발표
2. 머스크, 세계최초 바이오연료 사용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 프로젝트 본격 시작
3. 저유황유 사용으로 선박 운항비 증가... 화주 부담 예상
4. 트리에스테항·중국 CCCC, 상호 협력 위한 협약 체결

명사 스피치

“안전한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도 안전의 패러다임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2019. 3. 27. / 한국철도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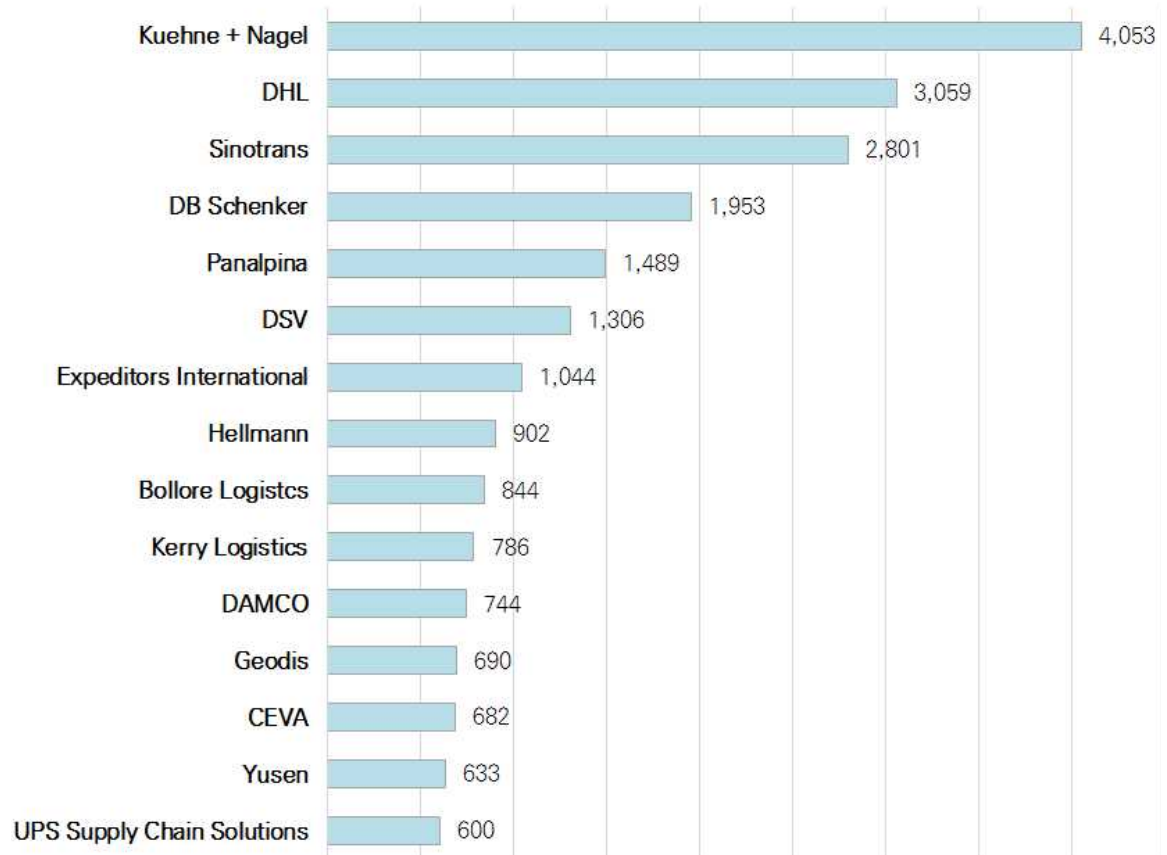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Kuehne + Nagel, 2017년 포워더 컨테이너 처리실적 1위

글로벌 포워딩 기업의 컨테이너 처리실적(2017년 기준)

(단위 : 천 TEU)



자료 : www.statista.com

- 2017년 글로벌 포워딩 기업들의 컨테이너 처리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Kuehne + Nagel이 세계 1위를 기록함
 - Kuehne + Nagel은 약 4백만TEU를 처리해 포워딩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DHL(약 3백만TEU), Sinotrans(약 280만TEU) 순임
- 상위권(1~5위) 포워딩 기업들의 국가를 살펴본 결과 Sinotrans(중국)를 제외하고 대부분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내 물류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2019.04.02.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DHL, 금년도 10대 공급망 위협요소 발표

- DHL은 Resilience360 보고서에서 2019년 공급망에 위협을 줄 수 있는 10대 요소를 선정해 발표함
- 세계 무역전쟁, 원자재 부족, 리콜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장 위협적인 3대 요소로 선정함
 - 무역전쟁과 관련해 브렉시트, 새로운 수입 관세, 기타 무역 장벽 등이 제조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할 것이라 경고함
 - 원자재 부족의 경우 원자재 수출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과 공급지 폐쇄 등으로 인한 공급 취약성이 수요 증가와 맞물려 리튬,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의 품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함
 - 리콜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품질 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의 확대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여러 분야의 규제 강화로 인해 품질 사고가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 예상함
- 이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심화, 노사분규에 의한 운영 문제, 위험물 운송사고, 국경지역 분쟁으로 인한 운송시간 지연, 드론으로 인한 항공 안전의 위협 등을 주요 요소로 선정함
 - 환경 규제로 인해 아시아의 광범위한 산업에서 오염 방지 대책이 요구될 것이며 미국도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환경 규제 강화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공급망의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
- 2018년 보고서에서는 불확실한 무역 흐름, 사이버 보안사고, 기후 변화가 주요 위협 요소로 선정된 바 있음
 - Resilience360이 2018년 유럽에서 실제 일어난 공급망 사고를 조사해 본 결과 독일과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으며 화물 절도, 화재 및 폭발, 열차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일어난 노란조끼 시위로 인해 고속도로, 항만, 산업도로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민사회 불안정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됨
 - 가뭄으로 인한 라인강 수위 저하, 그리스의 지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홍수 등의 기상 이변도 공급망에 많은 위협을 초래
- DHL은 위협요소 분석 보고서가 취약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운송 지연, 도난, 자연 재해, 사이버 공격, 예기치 못한 품질 문제 등이 야기할 수 있는 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참고자료 : www.aircargonews.net, 2019.3.25. / www.resilience360.dhl.com, 2019.3.27.

김성기 전문연구원

051-797-4688, skkim@kmi.re.kr

머스크, 세계최초 바이오연료 사용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 프로젝트 본격 시작

- 덴마크 선사 머스크가 친환경 컨테이너선 운항을 위해 최근 자사의 2세대 Triple-E(18,000TEU급) 초대형 '컨'선에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시범 운항을 본격 시작했음
 - 머스크는 네덜란드의 DSGC(Dutch Sustainable Growth Coalition)와 협력해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시범운항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 금번 프로젝트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머스크와 네덜란드의 DSGC가 협력을 통해 머스크의 2세대 1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Triple-E)에 바이오연료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운항 테스트 해보는 것임
 - DSGC는 경제적 이익과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 성장 비즈니스모델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으며 'FrieslandCampina', 'Heineken', 'Philips', 'DSM', 'Shell' 및 'Unilever' 등 8개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머스크는 올해 3~6월 사이 로테르담과 네덜란드에서 상하이 간 약 25,000마일의 항로에 시범운항을 할 예정임.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컨'선 운항은 세계 최초의 시도로 머스크는 최대 20%까지 바이오연료를 연료유로 사용할 예정이며 약 150만kg 이산화탄소와 2만kg의 황산화물 배출 감축이 가능함
 - 머스크의 주요 고객들로 구성된 DSGC 회원 기업들과 머스크는 선박 운항에 따른 관련 유해 배출물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하다는데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테스트 및 구현을 위해 산업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DSGC 회원들은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컨테이너선박의 시범운항 테스트에도 후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Shell'이 바이오연료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2세대 머스크 Triple E-class 컨테이너선박 모습도



출처<https://ngtnews.com/maersk-announces-maritime-biofuel-pilot>

참고자료 : www.greencarcongress.com 2019.03.26.

이주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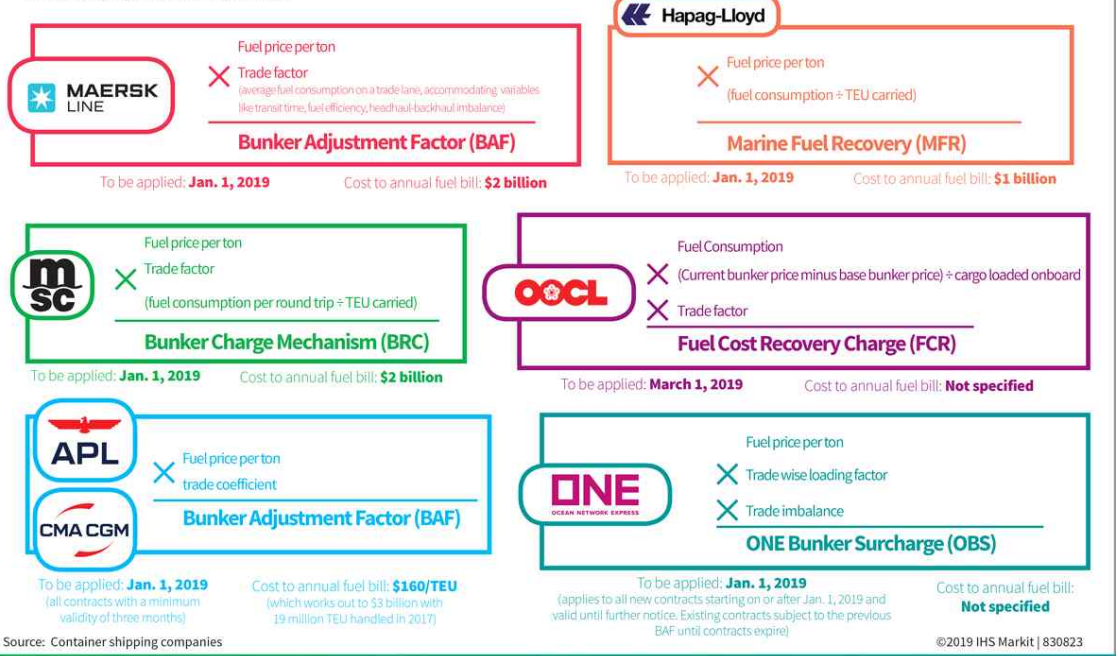
051-797-4667, peterlee@kmi.re.kr

저유황유 사용으로 선박 운항비 증가... 화주 부담 예상

선사별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유류할증료 산정 공식

Container lines push low-sulfur fuel fees

Bunker surcharges have been revised by carriers to mitigate the effect of the IMO sulfur cap of 0.5 percent from Jan. 1, 2020, which could add up to \$15 billion to container shipping's annual fuel bill. Carriers have no option but to directly pass on the costs to shippers and have already begun to phase in the new surcharge formulas to prepare the market for 2020.



자료 : www.joc.com, IHS Markit 자료 인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선사들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선사들은 현재 사용하는 3.5%의 고유황유가 아닌 0.5%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IMO가 규정하고 있는 스크러버를 설치해야 함
 - 스크러버를 설치하게 되면 비교적 저렴한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설치비용으로 인해 정기선의 약 5%만 스크러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의 선박들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보임
- 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발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미 서부 265달러, 미 동부 700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2020년 연료비 증가는 약 100~15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며 선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임
 - 연료비 상승은 선사의 운항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컨테이너 선사들은 저유황유 의무화로 인해 증가하는 운항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임



- 한 선사 관계자에 따르면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비 인상을 운송비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화주 (BCO·Beneficial Cargo Owner)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함
 - 각 선사들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니 하팍로이드(Hapag Lloyd)의 경우 명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유류할증료(BAF·Bunker Adjustment Factor)에 연료비 인상분을 포함시킬 예정임
 - 일부 선사 임원들은 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고객들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당한 비용이라고 주장함
- 선사와 화주 간의 태평양항로 서비스 계약 협상 결과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비용증가 대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 선사와 화주 모두 추가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저유황유의 가용성과 고유황유와의 비용차이 등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 또한 화주 측은 유류할증료 산정공식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어 하며 일부 화주 측은 선사 측의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저유황유 전환이 예정된 4분기에 유류할증료 적용 산정방식 합의 조항이 협상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www.joc.com, 2019.4.3.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트리에스테항·중국 CCCC, 상호 협력 위한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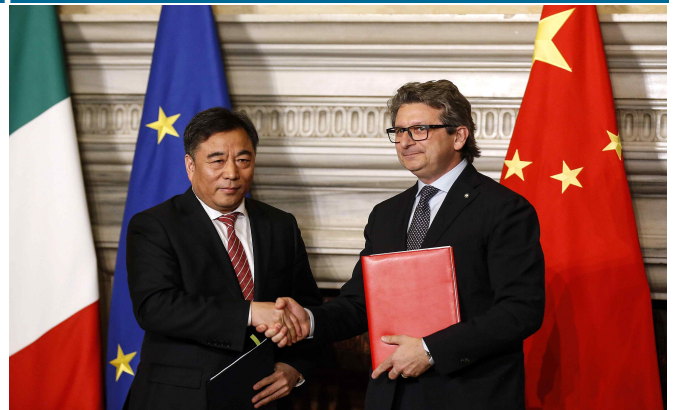
-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항(Port of Trieste)은 중국 교통건설유한공사(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CCCC)¹⁾와 체결된 협약을 통해 중부 유럽지역 진출을 도모함
 - 트리에스테항은 지난 3월 23일 로마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 및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인 중부 유럽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Port Network Authority²⁾가 CCCC가 추진 중인 슬로바키아의 항만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중부 유럽지역에서 항만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트리에스테항은 CCCC와 협력을 통해 중국 물류산업관련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항만당국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 내 항만물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극동지역과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번 협약에서 아드리아해 동부 트리에스테항 인근 철도 인프라 개발에 대한 합의를 공식화함
- 트리에스테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편승해 대륙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지역 협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이번 협약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탈리아 방문에 따른 것으로, CCCC는 트리에스테항 뿐 만 아니라 제노아항(Port of Genoa)과도 항만 인프라 재건 및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트리에스테항 위치



자료: <http://www.sloveniaforyou.com>

트리에스테항과 CCCC 협약 체결



자료: <https://oevz.com/>

■ 참고자료 : World Maritime News 및 Seatrade Maritime News 참조, 2019.4.1. 검색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1) CCCC는 중국 국영 운송 및 교통 관련 인프라 건설 기업

2) 이탈리아 항만청으로 항만 운영 및 항만관련 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항만청 산하 15개의 항만을 관리하고 있음